

설

설설 끊는 아랫목 마냥 마음도 뜨듯해서 설인 게지

■ 놀랄 일입니다. 화롯불을 지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넓어집니다. 독한 겨울바람이 체온을 빙점까지 끌어내릴 듯하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이 등장군보다 무서운데도 말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설은 이렇게 조화를 부립니다. 온기 없는 재래시장에도 모처럼 훈기가 감돕니다. "늘 개점 휴업"이라며 울상이던 상인들도 모처럼 얼굴주름을 펴니다. 제 입 때문이 아니라 설에 찾아올 자식들 입 걱정 때문에 시장을 찾는 어머니들로 장터가 아랫목처럼 뜨듯해지는 것이지요.

■ 이맘때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찾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발길도 잦아듭니다. 매일 한테 모여 자식들 걱정과 한세상 살아온 얘기를 풀어놓으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지겨워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식을 품었던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들은 "없는 집 제사 찾아오듯 한다"면서도 설은 반깁니다. 자식과 만남으로 가난보다 무서운 고독에서 잠시 놓여날 수 있어서입니다.

■ 전화로만 감질나게 목소리를 들려주던 손주를 품에 안아 볼 수 있다는 것도 부모님들의 큰 행복입니다. 최근에 만난 노 신사분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휴, 늙은이 부부 살기도 힘든데 딸내미가 손자를 키워달라고 말렸어요. 아득하더군요." 이 말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크게 고개를 끄덕일만한 말씀은 나중에 이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병치레 하면서 지쳤는데, 이놈을 키우다 보니 글썽 오래오래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손주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 됐어요."

■ '헬조선'이라 불리는 땅에서 사는 자식들도 새로운 용기와 충전의 동력을 얻곤합니다. 부모님과 만남은 몸과 마음에 쌓인 두터운 각질을 털어내는 세례(洗禮)입니다. 형제들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얼굴

을 보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설은 우리에게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서 온기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윤영기 기자·사진=김진수 기자



내 새끼 오는데 맛난 거 먹어야 행복해 보인다. 어느 때 같은 수다가 아닐 터. 자식·손주 입에 들어갈 맛난 음식 얘기일 것이다. 광주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 어머니들이 설 장을 보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